

# 王穉登을 통해 본 명후기 山人의 사회문화적 특징

신민야\*

##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명후기 山人 현상
3. 王穉登을 통해 본 명후기 山人의 사회문화적 특징
  - 1) 권세가에 대한 간알
  - 2) 賣文과 폭넓은 교유
  - 3) 主流文學의 조력자
  - 4) 閑適과 縱欲의 山人文化 체현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명후기는 도시경제의 번영과 상업 발달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이다. 여러 변화들 중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로 과거시험을 통한 관직 진출의 길이 막힌 지식인들이 대거 출현한 것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사치와 향락이 만연한 사회 풍조 속에서 중국 고대의 고상한 이미지의 '은자'와는 다른 세속적 이미지의 은자로 살아가는데 이들을 흔히 '山人'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山人들은 관심을 기존의 유가적인 道義나 사회적인 책임으로부터 세속과 자아로 돌려 독특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王穉登(1535-1612)<sup>1)</sup>은 이러한 산인의 삶을 살았던 전형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과거시험에 두 번 도전하고자 했으나 다 인연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강사

1) 字가 百穀이며 別號가 半偈主人, 靑羊君, 長生館主, 廣長庵主, 松壇道人 등이다.

이 닿지 않았다.<sup>2)</sup>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벼슬길에 마음을 접은 왕치등은 지금의 蘇州인 吳中 지역에서 名士로 살아가게 된다. 그는 시가, 산문, 소설, 희곡 등의 작품을 남긴 문인이면서, 서법, 회화, 수집, 바둑 등에도 정통한 사람이었다. 또 시집, 서화집, 산곡 선집 등의 編選者이자 評點者이기도 했다.<sup>3)</sup>

역대 문인들의 왕치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비교적 극명하게 갈린다. 『明史』와 『列朝詩集小傳』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萬曆野獲編』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明史』는 왕치등이 30여년 吳中 문단을 주관했으며, 가정·융경·만력 연간의 은자와 산인 중 명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으며,<sup>4)</sup> 『列朝詩集小傳』에서도 왕치등이 30년간 吳中 문단을 성대하게 꽃피웠다고 평가했다.<sup>5)</sup> 『明史』와 『列朝詩集小傳』에서는 또 왕세정의 둘째 아들 士驥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왕치등이 도와준 점 등을 들어 왕치등의 인품도 높이 평가했다. 반면 『萬曆野獲編』은 왕치등을 ‘相門山人’이라면서 재상 袁煒의 문객으로서 생계를 도모한 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 곳곳에서 왕치등 인품의 비열한 면모 등을 언급하고 있다.<sup>6)</sup> 다른 서적들에서 왕치등을 徵君, 較書, 記室, 太學生 등의 명칭으로 부른 것과 달리 유독 『萬曆

- 2) 첫 번째는 과거시험을 앞두고 아버지의 부고가 와서 귀향했으며, 두 번째는 太學이 정원초과라 왕치등을 받아 주지 않아 과거를 포기하고 귀향했다.
- 3) 왕치등은 이반용의 『唐詩選』에 評點을 했으며, 『周賀詩集』 『詩韻輯要』 등을 編選했다. 또 書畫選集 評論인 『皇朝丹青志』 『海內名公雲翰玉唾新編』 『赤翰寶珠編』 등을 편찬했다. 散曲選集인 『吳騷集』과 일상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는 『奕史』 『長物編』 등도 編選했다. 『吳郡丹青志』의 경우 당시 오중회화에 대한 사료기록으로, 소주의 24명 화가의 회화에 대해 서술하고 이 화가들에 대한 평가도 했다.
- 4) “오중 지역은 문정명 이후부터는 시문이 귀속되지 않았다. 왕치등이 일찍이 문정명의 문하에 들어갔으며, 그 기풍을 오랫동안 이어 시문의 자리를 주관한 것이 30여년이였다. 가정·융경·만력 연간에 布衣와 山人으로 시명이 높았던 사람이 열 몇 명이어서 유윤문·왕숙승·심명신 등이 특히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으나 명성이 혁혁하기로는 왕치등이 최고이다(吳中自文徵明後, 風雅無定屬. 釋登嘗及徵明門, 遙接其風, 主詞翰之席者三十餘年. 嘉·隆·萬曆間, 布衣·山人以詩名者十數, 俞允文·王叔承·沈明臣輩尤爲世所稱, 然聲華烜赫, 釋登爲最)”
- 5) “오문은 문정명이 죽은 후에 시문의 도가 귀속되지 않았다. 왕치등이 성대하게 꽃피워 침체된 문단에 생명을 불어넣어 시문의 자리를 주관한 것이 30년이였다.(吳門自文待詔歿後, 風雅之道, 未有所歸, 百穀振華啓秀, 嘯枯吹生, 擅詞翰之席者三十年.)”
- 6) 『萬曆野獲編』의 「恩詔逐山人」, 「山人歌」, 「守土吏狎妓」 등은 모두 왕치등 인품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野獲編』에서만 ‘相門山人’이라 하면서 왕치등에 대해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이후 왕치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은 주로 『萬曆野獲編』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명후기 ‘산인’ 계층의 등장은 당시의 독특한 사회문화 현상으로 이들은 당시 사회의 산물이다. 본고는 2장에서 명후기의 山人 현상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왕치등을 통해 명후기 산인이 가지는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네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명후기 山人 현상

중국 고대에 ‘산인’이라는 단어에는 ‘산 속의 사람’이라는 의미와 ‘산림을 관장하는 관리’의 의미가 있었다. 요임금 때 巢父와 許由가 은사의 형상을 수립한 이후, 동한 말 사회의 혼란으로 인해 많은 은사들이 생겨났고, 남북조 때는 은일을 숭배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은사들은 보통 산 속에서 생활했기에 ‘산인’은 은사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 명청시대까지 ‘산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외에 도교의 도사, 점술가, 무당 등을 ‘산인’이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명대에 와서 문인들이 산인이라 부른 경우는 은사인 경우, 문인의 아호로 쓴 경우, 또 벼슬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부르는 경우 등이 있었다. 명초에는 대체로 ‘산인’이라는 단어에 은자의 성격이 짙게 들어 있었다. 이 외에 은자의 여부와 상관 없이 문인들이 ‘산인’을 雅號로 쓰는 현상도 두드러졌는데 正德·嘉靖 연간의 학자 黃省曾의 호가 五嶽山人이고, 後七子 중의 한사람인 王世貞의 호가 弇州山人인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명대 중기에 들어서면서 이전의 산인과는 성격이 다른 유동적인 士人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해 사람들이 이들을 ‘산인’이라고 지칭했다. 이후 嘉靖(1522~1566)에서 萬曆(1573~1620)에 이르는 시기에는 이 집단이 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여 이런 士人들을 전문적으로 지칭하는 호칭이 되었다. 이 시기에 ‘산

인'은 같은 사회신분과 문화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통의 행위 특징을 가진 특정 집단에 대한 정식 명칭이 되었다. 명후기 竟陵派 문인 譚元春은 다음과 같이 산인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한 바 있다.

산인은 솜이 얇은 재주를 가지고서 사방에 배와 수레를 묻는 사람의 호칭이다.<sup>7)</sup>

담원춘의 정의에 의하면 산인은 솜으로서, 생계수단으로 '얇은 재주(薄技)'에 의지하며, 사방을 다니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솜'은 정식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다른 관리나 세력이 아래에서 일하거나 幕府 등에서 일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또 '얇은 재주(薄技)'에 의지한다 함은 詩文을 쓰고 書畫를 창작하는 재주를 밀친 삼아 생활했다는 의미로, 명대 중후기에 벼슬길에 들어가지 못한 士인들이 생계를 위해 詩文이나 書畫를 팔아 생활했음을 가리킨다. 산인은 또한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었음도 앞의 담원춘 문장에서 알 수 있다. 명말 청초 문인 錢謙益은 『列朝詩集小傳·吳山人擴』<sup>8)</sup>에서 '산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명대 布衣 중 시로 이름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단아 스스로 만족하고, 가벼이 속세에 다니지 않았으며, 그 시집을 끼고 서찰을 지니고서 사대부와 노닐었다. 송말의 소위 산인같은 사람은 가정 연간에 吳擴부터 시작되었으며, 북방에는 謝茂秦·鄭若庸이 있었고 이후에는 많기가 거리의 사람만큼 되었다.<sup>9)</sup>

이를 보면 명대에 벼슬을 하지 않은 布衣로 이름난 사람들은 속세와는 거리를 두고, 사대부와 시나 척독으로 교류했던 우아한 품격을 가진 이들이었다. 그러나

7) 山人者，客之挾薄技，問舟車於四方者之號也。(譚元春，「女山人說」，『譚元春集』，上海古籍出版社，1998，789쪽)

8) 臺北，世界書局，1965，454쪽.

9) 本朝布衣以詩名者，多封己自好，不輕出游人間，其挾詩卷攜竿牘，遨遊縉紳，如晚宋所謂山人者，嘉靖間自子充始，在北方則謝茂秦鄭若庸，此後接跡如市人矣.

가정 연간 인물인 吳擴부터 시작하여 고상한 布衣와는 다른 송대 말의 산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송대 말의 산인'이라는 것은 산인이라는 이름으로 생계를 도모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북송 전기에 '산인'이라는 이름으로 생계를 도모하는 지식인이 이미 등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는 이런 유형의 지식인이 그리 성행하지 않았다. 또 명대에 북방에는 謝榛(1495~1575)·鄭若庸(1535년 전후) 등의 산인이 있었으며 이후 산인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 크게 성행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전겸익은 『열조시집소전』에서 명대 이천여 시인의 생평과 그 대표작을 소개하고 있는데, 명중기 이전의 시인을 수록하고 있는 甲集에서 丙集까지를 보면 그 중 '산인'이라 칭한 사람이 12명이며 지역별로 江北이 6명, 江南이 6명이다. 명후기 시인을 주로 수록하고 있는 丁集의 경우 '산인'이 44명인데 그 중 강남에서 생활한 사람이 42명이다. 『열조시집소전』에 수록되지 않은 산인 시인이 훨씬 많았으리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산인이 명후기에 강남지역에 주목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sup> 명후기 문인 원굉도도 강남의 甯中문단(지금의 蘇州)에 “시와 그림은 숲처럼 많고, 산인은 모기처럼 많고, 관리는 구름처럼 많다(詩畫如林, 山人如蚊, 冠蓋如雲)”<sup>11)</sup>며 산인 유행 현상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럼 명대 중후기에 와서 이러한 산인들이 대거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명후기의 산인 유행 현상은 당시 과거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가지 못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출현한데서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이 佛道의 은일사상과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심학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경제 변영으로 인한 상업중시 풍조와 사치 등의 사회 분위기 속에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전통적인 유가인생의 길을 벗어나 자신의 시문을 팔아 생활하는 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 대부분의 산인은 과거시험에 실패한 사람이거나 과거를 보겠다는 의지를 접거나 혹은 벼슬길에서 좌절한 사람들이었다. 명대에는 과거

10) 한 통계에 의하면 17세기 전후 중국의 시문작가는 대략 1750명인데 그 중 강남 지역의 작가가 1050명으로 대략 61%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오중지역이 510명으로 강남 작가의 절반에 달하는데 이 숫자 안에는 산인 시문작가도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1) 『王以明』, 『袁宏道集箋校』,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223쪽.

시험이 전 계층에게 개방되면서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준비하게 되었다. 명후기의 경우 50만명에 달하는 生員이 있었으나,<sup>12)</sup>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지식인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당시 과거 시험에 실패한 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경우가 있었다. 첫째, 幕僚로서의 삶이다. 명대 이전 시기에는 군사기관인 幕府에서 막료로 일할 경우 하급관리의 자격이 주어졌으나 명대에는 하급관리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관직에 뜻을 둔 지식인들에게 막료라는 신분은 그리 큰 매력이 없었다. 둘째, 은자로서의 삶인데 명후기에는 향락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은자는 찾기 어려웠다. 셋째, 거문고, 바둑, 서법, 서화 등과 이밖의 다른 기예를 밀친 삼아 사대부의 여흥을 돋우는 淸客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러한 淸客의 삶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어려웠다. 따라서 막료, 은자, 청객 등의 신분으로 살던 士人들은 자연스레 산인으로 흡수되었다.<sup>13)</sup>

그런데 이러한 산인집단 안에서도 다양한 편차가 존재했다. 향시에 합격하지 못한 諸生(예를 들어 徐渭는 여덟 번 시험을 봤으나 합격하지 못했고 진계유는 한 번 시험을 봤으나 합격하지 못함), 국자감에서 공부하던 유생인 貢生 신분(王穉登, 梁辰漁 등), 舉人이나 進士로 공명을 이루었으나 관직을 그만두거나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들(屠隆은 진사로 벼슬을 하였으나 파직됨, 張鳳翼은 舉人이었으나 벼슬을 하지 않았고 진사에 합격 못해 뒤에 산인이 됨) 등으로 다양했다. 산인이라는 호칭은 원래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은 아니었다.

12) “合天下之生員，縣以三百計，不下五十萬人”(顧炎武，「生員論上」，『亭林文集』卷1，『顧亭林詩文集』，北京，中華書局，1983，21쪽.)

13) 신주리는 문인 중에서도 16세기 들어서 대거 출현하고, 주로 강남의 도시에서 활동했으며 전통적인 문인의 궤적에서 벗어난, 실질적으로 明清代 文人의 다수를 점했던 문인을 ‘주변부 문인’이라 명명하고 이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을 未入仕 문인으로 주변지식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글쓰기를 한 것을 꼽았다.(『16-17세기 강남의 주변부 문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2) 신주리가 말한 ‘주변부 문인’은 본고에서 다룬 ‘산인’의 개념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백광준은 명말의 張岱와 陳繼儒를 통해 은사의 정체성은 시문서화에 대한 능력, 남들에 대한 교화의 책무 등과 연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런 면에서 이들은 변질되기 이전의 산인, 곧 사대부의 길로서 은자를 지향했다고 보면서 이들이 산인과 사대부의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 보았다.(「士大夫와 山人의 사이에서」, 『중국문학』 제85집, 2015)

산인이라는 명칭은 본래 중하여 陳繼儒와 같은 사람만이 겨우 이 칭호를 가질 수 있었다. 생각지도 못하게 요 수십년 동안엔 돌아다니는 무뢰한들이 시집을 두루 고관들에게 바치는데 이들도 산인이라 부른다.<sup>14)</sup>

위의 『萬曆野獲編』에서 심덕부는 陳繼儒 정도 되는 인물에게 붙일 수 있는 ‘산인’이라는 칭호가 고관들에게 시문을 바치고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산인이 점차 늘어나고 문학이나 경제 분야에서 지위를 차지하고자 다투면서 산인 현상은 날로 하류로 치닫게 되며 『萬曆野獲編』의 「恩詔逐山人」, 「山人愚妄」 등에 이러한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다.

명후기 양명학 좌파의 사상가 李贄는 「又與焦弱侯」에서 산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건대 오늘날의 성인이란 자들은 산인으로 불리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요행과 불행의 차이만이 존재할 따름이지요. 요행 시라도 지을 줄 알면 자칭 산인이 되고, 불행히도 시에 재주가 없으면 산인의 칭호를 사양하고 성인이란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요행 양지에 대해 강의할 줄 안다면 성인으로 자칭하고, 불행히도 양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 성인이란 호칭은 접어두고 산인으로 자칭합니다. 이 따위로 요리 조리 뒤집는 것이나 반복하여 세상을 속이고 이익을 차지하니 명색은 산인인데 그 마음은 장사치나 다름이 없고, 입으로는 도덕을 외치지만 뜻은 개구멍을 파는 도둑질에 있습니다. 명색은 산인이라지만 마음이 장사치나 진배없으니, 이 얼마나 비천한 꼬락서니입니까? 그러고도 도리어 부자에게 빌붙는 자신을 은폐하려 송산 소실산에 노닌다고 내세우며 이로써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찌 더 한층 가증스럽지 않겠습니까! ..... 요즘의 산인이란 자들은 장사치라 칭하자니 한푼도 지니지 못한 무일푼 처지고, 산인이라 부르자니 공경대부의 대문 안이 아니면 발을 들여놓지 않는 까닭에 비천하기만 할 따름이지요.<sup>15)</sup>

14) 山人之名本重, 如李滄侯僅得此稱, 不意數十年來出遊無籍輩, 以詩卷遍贄達官, 亦謂之山人. (沈德符, 『萬曆野獲編』 卷23, 「山人名號」, 585쪽)

15) 由此觀之, 今之所謂聖人者, 其與今之所謂山人者一也, 特有幸不幸之異耳. 幸而能詩, 則自稱曰山人, 不幸而不能詩, 則辭卻山人而以聖人名, 幸而能講良知, 則自稱曰聖人, 不幸而不能講良知, 則謝卻聖人而以山人稱. 展轉反覆, 以欺世獲利, 名為山人而心同商賈, 口談道德而志在穿窬, 夫名山人而心商賈, 既已可鄙矣, 乃反掩拙豐而顯嵩少, 謂人可得而欺焉, 尤可鄙也!..... 今山人者, 名之為商賈, 則其實不持一文, 稱之為山人, 則非公卿之門不履, 故可賤耳.(이지 지

위의 글에서 이지는 명후기의 假道學者와 山人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지에 의하면 산인은 시에 재주가 있으면서 세상을 속여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마음이 장사치와 다름없는 사람들이다. 또 부자나 공경대부에게 빌붙어 사는 비천한 자들이라며 그 천박함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명후기에 와서 산인 집단이 형성되면서 산인이 사회적으로 끼친 폐해를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심덕부와 이지가 비판한 산인은 주로 산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 산인 末流를 향한 것이었다.

명후기 산인들은 더 이상 전원에서 은거하는 것에 환상을 가지지 않았으며, 도시에서 은일하여 세속의 즐거움도 얻으면서 은일의 명분도 누린 入世와 出世를 혼합한 형태의 삶을 살았다. 이들은 세속화된 은자로 산 속이 아닌 市井에서 은일하면서 광범위한 교유활동을 하였으며, 문학단체에 가입하여 唱和하고, 시와 술을 즐기고, 명산대천을 유람하고,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다. 산인의 사회지위는 '士'와 '民'의 중간에 위치하여 비교적 낮은 계층에 속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생계에 급급하여 국가나 사회를 위한 어떤 대의명문이나 이상보다는 사회안에서 생존하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명대 문인 李維楨은 명후기 산인 陸弼을 예로 들어 "위로는 고관들과 교류할 수 있고, 아래로는 소 고치는 의원·말 모는 하인과 무리지을 수 있어, 탁하기가 술 팔고 개 도살하는 사람과도 놀 수 있고, 맑기가 고승·도사를 대할 수도 있으니 참으로 한 마디로 명명하기가 어려운 선생이다.(上可以交公卿, 下可以群牛醫馬卒, 濁可以遊賣漿狗屠, 清可以對高僧羽客, 誠難以一節名先生)"<sup>16)</sup>라며 그 다중적인 성격을 지적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명후기 산인은 개인적인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강남 지역에 살면서 과거시험에 실패하거나 과거시험을 포기한 이들로, 관리나 세력가에게 '의탁'하여 살면서 시문이나 서화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다. 산인은 명대 사회 변화의 산물로 하급 관리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에 막료를 선택하

음, 김혜경 옮김, 『분서』 1, 서울, 한길사, 2004, 217-218쪽. 번역문에서 '處士'와 '山林處士'라고 한 부분만 원문에 따라 山人이라 수정함)

16) 李維楨, 『陸無從集序』, 『大瀋山房集』 卷13, 『四庫全書存目叢書』.

지 못하고, 그렇다고 기꺼이 진정한 은사<sup>17)</sup>가 되기를 원치도 않으면서, 조용히 布衣<sup>18)</sup> 지주로 살기도 원치 않고, 淸客처럼 사대부의 여흥을 돋우는 도구로 전락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다.

명대 중후기의 대표적인 산인은 謝榛(1495~1575), 徐渭(1521~1593), 王穉登(1535~1612), 周履靖(1549~1640), 陳繼儒(1558~1639), 趙宦光(1559~1625)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謝榛은 후철자에 꼽히기도 했으며, 徐渭는 유명한 희곡작가이자 이론가이며, 陳繼儒는 출판업에서 큰 명성을 날렸고, 王穉登·周履靖·趙宦光 등도 시문으로 이름이 높았다. 청대의 趙翼은 명대문학을 총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과거시험을 통하지 않고도 재능과 명성으로 한 시기를 뒤흔든 사람으로  
는 ..... 사진·노남·서위·심명신·여인·왕치등·유운문·왕숙승·심  
주·진계유·루건·정가수 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生員이며, 어떤 사람  
은 布衣와 山人으로, 각기 시문과 서화로 당시에 드러나고 후세에도 전해  
졌으니, 한림원의 인사들을 돌아보면 어떤 이는 훨씬 이에 미치지 못한  
다.<sup>19)</sup>

위 글에서 조익이 산인들의 문학적인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대에 와서 乾隆 연간에 사고전서를 편찬할 때 명후기 산인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다. 이는 청대가 지향한 정책이 산인이 추구했던 개성 해방과 자아독립의 경향과 서로 어긋났기 때문으로, 서위, 왕치등, 진계유 등 대표

17) 『명사·은일전』에는 은사가 11명만 실려 있는데 선정 기준은 적어도 한차례 국가의 초빙에 거절한 유명한 지식인이어야 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심덕부와 전겸익 등이 그들의 저서에서 묘사한 많은 산인들은 은사가 아니다. 명대에는 은사라는 명칭이 유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초에 국가의 부름에 거절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만들었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18) 布衣는 단지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山人처럼 과거와 벼슬길에 완전히 뜻을 접은 것과는 구별이 된다.

19) 不由科目而才名傾動一時者, .....謝榛·盧梈·徐渭·沈明臣·余寅·王穉登·俞允文·王叔承·沈周·陳繼儒·婁堅·程嘉燧, 或諸生, 或布衣山人, 各以詩文書畫表現於時, 并傳及後世, 回視詞館諸公, 或轉不及焉. (『明代文人不必皆翰林』, 『廿二史札記』卷34, 北京, 中國書店影印 1939年世界書局本, 493쪽)

적인 산인의 많은 저술이 금서가 되기도 했다. 산인은 비록 명후기 당시에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속하지 못한다. 삶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명후기 사회, 문화, 문학 등의 분야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량감을 가지고 있었다.

## 2. 王穉登을 통해 본 명후기 山人의 사회문화적 특징

명후기에 과거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힌 지식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산인'이라는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당시 경제 번영으로 인한 향락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세속적인 은자로 살아가게 된다. 왕치등은 이러한 '산인'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번 장에서는 왕치등을 통해 명후기 山人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네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권세가에 대한 간알

왕치등의 선조는 江陰 사람으로 왕치등은 吳中(지금의 蘇州)에서 자랐다. 열살에 이미 시를 쓸 줄 알았으며, 재능이 출중하고 문장을 잘 지어 吳中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왕치등의 집안은 대대로 상인이었으나 왕치등의 아버지가 왕치등에게 책을 읽게 했다. 명대 중후기에 대부분의 상인이 자식의 신분상승을 위해 책을 읽게 했는데 왕치등의 경우는 士商 혼합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왕치등이 20살이었을 때 당시 오중 문단의 영수였던 文徵明을 수행해 눈을 감상하러 나갔다가 이후 왕치등의 시편이 문징명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당시 문징명은 이미 86세였으며, 왕치등은 문징명의 지지 아래 吳中에서 점점 두각을 드러냈다. 왕치등은 30세였던 嘉靖 43년(1564) 북경으로 가 太學에서 공부하며 과거시험을 준비했다. 이 당시 왕치등은 大學士 袁煒를 만나 그의 총애를 받게 되어 문객으로 있게 되었다. 記室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며 사관으로 추천받아 입각하여 校書로

명성을 날렸다. 왕치등은 과거 시험을 앞두고 아버지의 부고를 들어 과거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sup>20)</sup> 33세 때인 隆慶 원년(1567) 다시 북경에 갔으나 이때는 원위가 이미 죽은 뒤였고, 원위와 사이가 안 좋았던 徐階가 국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태학은 이미 정원이 초과된 상태라 왕치등을 받지 않았다.<sup>21)</sup> 왕치등은 과거시험을 통한 벼슬길을 포기하고 귀향했다. 당시 주위 사람들이 만류했으나 왕치등은 “나에게 천년의 업이 있으니 어찌 진사 합격에 있겠는가(吾有千載之業, 寧在一第)”<sup>22)</sup>라며 과거합격이 아니더라도 천년의 대업인 시문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처럼 두 번이나 과거와 인연이 안 닿았던 왕치등은 과거를 포기하고 산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산인으로서의 삶은 대체로 관리에게 간알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거나 시문이나 그림을 팔아 번 돈으로 꾸려나가게 된다. 왕치등의 경우 30세 때 처음 북경에 갔을 때 袁煒의 눈에 들어 원위의 문객으로 의탁하게 된다. 원위가 한림원의 관리들에게 시험보려했던 「瓶中紫牡丹」시에 왕치등이 ‘색은 재상 도포의 보랏빛을 빌리고, 향은 태극전의 안개를 흩어놓네’라는 구를 넣어 지었다. 袁煒가 감탄하여 높이 평가하여, 한림원의 여러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책하며 말했다.: “공들은 시문 짓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데 왕수재의 열 네 글자를 얻을 수 있겠는가?”<sup>23)</sup>라며 극찬했다. 이로 인해 왕치등은 하루 아침에 유명해졌다. 과거에 합격하진 않았지만 북경의 문인과 고관들 사이에서 이름을 나란히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원위를 만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원위는 禮部尙書 겸 武英殿大學士預機務였다. 당시 가정 황제는 仙學과 長生에 심취해있었는데 원위는 도교에서 재를 올릴 때 읽는 축문인

20) “북쪽 북경에서 공부하였는데, 태학에 들어가 황제가 있는 궁궐의 아름다운 수레를 널리 보고, 예악과 의관의 성대함을 기록하여, 일일이 詞賦에 기탁하였다. …… 부친의 부고가 와서 급히 돌아갔다(北游燕都, 入太學, 縱觀皇帝宮闕之美車, 書禮樂衣冠之盛, 一一托之詞賦 …… 會先府君訃至, 奔還.)”(『廣長菴主生壙志』, 『竹箭編』卷下, 『王百穀集十九種三十九卷』, 『四庫禁燬書叢刊·集部』第一七五冊, 北京, 北京出版社, 2000, 268쪽)

21) 隆慶初載, 再入試京兆, 而太學中式者已溢額, 復不收先生.(李維楨, 『徵君王百谷先生墓誌銘』, 『大泌山房集』卷88, 544쪽)

22) 앞의 글.

23) 「閣試瓶中紫牡丹」詩, 伯穀有‘色借相君袍上紫, 香分太極殿中烟’之句, 汝南賞歎擊節, 呼詞館諸公, 數之曰:“公等以詩文爲職業, 能道得王秀才十四字耶?”(錢謙益, 『列朝詩集小傳·王校書禕登』, 481-482쪽)

靑詞를 잘 써 황제에게 중용되어 이춘방 등과 함께 靑詞四相이라 병칭되었다. 원위의 50세 생일에 어떤 사람들이 왕치등에게 돈을 주고 글을 구해 원위에게 올리려 했으나 왕치등은 거절하여 곧은 기개를 보여주었다. 3년간의 부친상을 끝내고 융경 원년(1567) 왕치등이 다시 북경에 갔을 때는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 원위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원위가 생전에 포악하고 오만했기에 문객들은 모두 흩어진 뒤였다. 사람들이 왕치등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원위와의 교분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으나 왕치등은 오히려 두 차례 북경에서 지낸 것과 관련된 시문을 『燕市集』 『客越志』에 刊刻하여 원위의 자신에 대한 은혜를 기념했다. 이에 대해 문인들이 『燕市集』 서문과 『客越志』 서문에 칭찬한 글을 남겼다.

처음 북경에 갔을 때 왕치등은 원위로부터 記室이라는 직책을 받아 원위의 글을 대필하거나 초안을 써 주는 일을 했다. 시 「昔者行贈別姜祭酒先生」<sup>24)</sup>에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 일부를 본다.

先帝論封禪,	선제께서 봉선을 논하시고,
焚香日坐蓬萊殿.	분향하시며 날마다 봉래전에 앉아 계셨네.
二三元老書不停,	두 세명의 원로들은 문장 쓰기를 멈추지 않고,
記室豎儒供筆硯.	記室인 나는 붓과 벼루를 바쳤다네.
袁公手內金花牋,	袁公 손 안의 金花牋,
口召王生生不前.	입으로 왕생을 부르나 왕생은 나서지 않네.
安知徐福三山事,	어찌 알리 徐福 <sup>25)</sup> 의 三山 일을,
但亦蘇秦二頃田.	다만 또 소진의 二頃田만 있으면 될 것을.
我欲東歸勸我留,	나는 東歸하고 싶으나 나에게 남으라 권하고,
滿床詩草盡見投.	침대 가득한 시는 다 받은 것이라네.

이 시에는 당시 원로들 앞에서 시중드는 왕치등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왕치등의 시집 중 『燕市集』의 경우 적지 않은 시편에 원위가 당시 자신을 보살피준 것을 기록하고 있다. 왕치등이 북경에 있을 때 폐병이 발작하자 원위는 사람을

24) 『靑雀集』, 『王百穀集十九種三十九卷』, 175쪽.

25) 秦나라의 유명한 方士로 진시황의 御醫였다. 齊나라에서 태어났으며 字는 君房이다. 진시황에게 글을 올려 바다에 三神山이 있는데 그 산이 蓬萊, 方丈, 瀛洲라 했다.

보내 보살펴주고 御醫를 보내 치료해 주었다. 왕치등은 「答袁相公問病二首」<sup>26)</sup>를 써 감사를 표했다. 이 시 중에 “술값은 모두 약사는 돈이 되네(酒價都爲買藥錢)”라는 구절이 있어 원위는 다시 名酒를 보내준다. 왕치등은 또 「謝汝南公惠名酒」<sup>27)</sup>를 보내 원위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시에는 “술이 진해 재상의 덕을 품고, 술에 취하니 병자의 얼굴을 바꾸네(醇含上相德, 醉易病人顏)”라는 구가 있어 왕치등의 원위에 대한 이부가 잘 드러난다. 왕치등이 內閣에 추천되어 들어가 『영락대전』 校書를 할 때의 득의함은 다음의 시 「初值史館」<sup>28)</sup>에 잘 보인다.

閉門春樹綠.	문 닫으니 봄 나무 푸른데,
丞相辟書來.	승상이 관직내리는 문서로 불러 들였네.
列館周王籍.	客舍에는 周王의 책이 있고,
諸生魯國才.	생원은 魯國의 재주 가졌네.
經將魚字校.	‘魚’라는 글자 교감하는 것 경험하고,
觀以虎名開.	‘虎’라는 이름 처음 정하는 것 보네.
深愧文章薄.	문장 알음이 깊이 부끄러워,
無以答上臺.	승상께 답하지 못하네.

위 시의 ‘승상’은 원위를 가리킨다. 왕치등과 원위의 관계는 명후기 산인과 사대부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산인은 사대부를 통해 명성과 경제적 도움을 받고 사대부 역시 산인의 도움을 받아 명성을 더 높일 수 있었다.

명대 중엽 이후로 산인 문인이라 과시하는 것이 풍조를 이루었다. 조금이라도 서화와 시문에 능한 사람은 아래로는 식객의 반열에 참여하고, 위로는 은군자라는 호칭으로 장식했다. (산인은) 사대부에게 의지하여 이익을 도모했고, 사대부 역시 (산인의) 도움을 받아 명성이 있게 되었다.<sup>29)</sup>

즉 사대부와 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어 상생하는 관계였던 것이

26) 『燕市集』, 『王百穀集十九種三十九卷』, 58쪽.

27) 『燕市集』 卷上, 『王百穀集十九種三十九卷』, 56쪽.

28) 『燕市集』 卷上, 『王百穀集十九種三十九卷』, 56쪽.

29) 有明中葉以後, 山人墨客, 標榜成風, 稍能書畫詩文者, 下則廁食客之班, 上則飾隱君之號, 借士大夫以爲利, 士大夫亦藉以爲名. (『四庫全書總目』 卷180 『牒草』 提要)

다. 그러나 왕치등의 원위와의 관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섬기는 계산적인 관계만은 아니었다. 嘉靖 44년(1565) 원위는 병이 들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죽게 된다. 원위는 생전에 원성을 산 사람이 많아 죽은 뒤에 문상 오는 사람도 없이 집이 적막했다. 왕치등은 원위의 집인 寧波를 찾아가 원위의 부인을 도와 장례절차를 돕고 「哭袁相公二首」와 「祭袁文榮公文」 등의 원위를 애도하는 시와 문장을 썼다. 또 매년 寧波를 찾아가 원위 부인의 생활을 보살펴 주었다. 隆慶 원년(1567) 왕치등이 다시 북경에 갔을 때도 왕치등은 원위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고 당시 몇 년간의 시문을 책으로 만들어 예전의 경력을 기념했다. 『客越志』는 왕치등이 원위의 상을 치르러 갔을 때 지은 것으로 당시 그가 만난 사대부, 名士 등이 22명에 달한다.

두 번의 과거시험과 인연이 닿지 않았던 왕치등은 권세가 원위의 보살핌과 후광으로 인해 유명해졌다. 왕치등은 원위를 대신해 글을 대필해주고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며 원위 역시 왕치등의 도움을 받아 명성을 날릴 수 있었다. 이는 명후기 산인과 권세가가 서로에게 의지하여 상생하는 관계를 잘 보여준다. 관직을 통한 경제적 내원이 없었던 산인에게 권세가의 보살핌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였다.

## 2) 賣文과 폭넓은 교류

두 번의 과거시험과 인연이 닿지 않았던 왕치등은 북경에서 돌아온 후 벼슬길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고 살아간다.

왕치등은 사람됨이 진취적이고 현명하며 기개가 활달하였으며, 서법과 전서·예서에 뛰어났다. 교류를 좋아하고, 접대를 잘하였으며, 의론을 말하는 것이 감동적이어서, 밤낮으로 계속되어도 듣는 사람들은 점점 피곤함을 잊었다. 오문은 문정명이 죽은 후에 시문의 도가 귀속되지 않았다. 왕치등이 성대하게 꽃 피워 칩체된 문단에 생명을 불어넣어 시문의 자리를 주관한 것이 30년이였다. 북경과 광동의 사람 중 오문을 지나는 사람들은 비록 장사하는 胡人과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문에 가서 한 번 만나기를 구했으며, 그 서화를 얻기를 간청한 이후에야 돌아갔다.<sup>30)</sup>

오문에서 왕치등은 문장명의 뒤를 이어 시문의 영수 역할을 했다. 또 그 지역의 명사로 명성을 누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그의 서화를 가지기 원했다. 명대에는 墓誌, 贈序, 壽序 등의 글이 유행했는데 관리들은 이런 문장을 쓰는데 능하지 않았고 쓸 시간도 없어 대신 써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산인이 바로 이런 글을 대신 써주는 역할을 하고 돈을 받았다. 한대의 司馬相如가 陳皇后에게 돈을 받고 「長門賦」를 써 준 이래로 중국 문인들이 시문을 파는 일이 있긴 했으나 이는 주로 생활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뿐 주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명대에 와서는 큰 변화가 생겨, 시문을 파는 대상이 사대부로부터 일반 서민에게로 확대되었고, 파는 글의 종류도 실용적인 문체에서 오락적인 문체로 확대되었고, 종류도 단순한 시문에서 서법과 회화 등의 범위로 확대되었다. 관직에 진출하지 못해 경제적 내원이 없던 산인들은 글을 팔아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청대같은 학술찬조 시스템이 없었던 명대에는 학술연구를 통해 상응하는 경제적인 댓가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산인들은 당시 여전히 문화신분으로서의 상징적 역할을 하던 시문 등에 의지해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왕치등 역시 서화와 시문 등을 팔아 생활했는데 그 명성이 높고 수요가 많아 그의 이름을 빌린 가짜 물건까지 등장할 정도였다.<sup>31)</sup> 왕치등은 시문이나 서화를 파는 것이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는 요사이 여기 문객으로 있어, 글을 써주고 작품을 팔아 주머니가 아주 두둑합니다. 저는 여유로우나 그대는 부족한데도 부족한 것에서 덜어 여유로운 데 보태주니 거꾸로 행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의 사귀이 아마 황금에 있지 않을까요.<sup>32)</sup>

30) 百穀爲人, 通明開美, 妙於書及篆隸, 好交游, 善接納, 譚論娓娓, 移日分夜, 聽者靡靡忘倦. 吳門自文待詔歿後, 風雅之道, 未有所歸, 百穀振華啓秀, 嘯枯吹生, 擅詞翰之席者三十年. 閩粵之人, 過吳門者, 雖賈胡窮子必躋門求一見, 乞其片縑尺素, 然後去申.(錢謙益, 『列朝詩集小傳·王校書稚登』, 481-482쪽)

31) 環先生而居者, 借其名以贖售, 不至糊口四方.(李維楨, 「徵君王百谷先生墓誌銘」, 『大泌山房集』 卷88, 濟南, 齊魯書社, 1997, 544쪽)

32) 僕問者客於此, 備書鬻賦藁甚饒, 其有餘在我, 而不足在足下, 損不足以佐有餘, 倒行逆施之矣. 吾兩人之交恐不在黃金.(「答顧益卿」, 『謨野集』 卷5)

하지만 이러한 매문은 괴로움을 수반하는 일이기도 했다.

돌아와 門樓의 시각 알리는 북소리를 이미 세 번 들어, 급히 베개를 베고 누우려는데 누군가를 위해 祭文을 써달라하니 호랑이보다 가혹합니다. 서쪽 창 아래에서 초 심지를 자르고는 종이를 펼치고 눈썹을 찡그리니, 마치 어려서 과거 공부할 때 苜蓿先生의 회초리를 두려워하는 모습 같습니다.<sup>33)</sup>

돈을 벌기 위해 쓰기 싫어도 억지로 祭文을 써야 하는 고통이 잘 보여진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임이 다음의 글에 잘 보인다.

여종과 가족이 눈썹과 이마를 찡그리며 돈이 부족하다 호소하는 것이 귀속에 시끄럽습니다.<sup>34)</sup>

왕치등은 이처럼 북경에서 원위를 만나 원위의 문객으로서 명성을 얻은 다음 오문으로 돌아와서는 오문의 명사로서 시문과 서화를 팔아 생활을 꾸려 나갔다. 관리의 門客이 되고 시문을 파는 賣文을 통해 살아가는 산인으로서의 삶은 벼슬길을 포기한 왕치등과 같은 명후기 잉여 지식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생존의 출로였다. 이와 더불어 폭넓은 교유 역시 산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 갖춰야 하는 요소였다. 왕치등은 아주 광범위한 교유를 했다.

조정의 使者, 제후, 관리, 사방의 손님이 귀하고 친함, 능력있고 어리석음을 가리지 않고 바퀴살이 모이듯 함께 모여들었다.<sup>35)</sup>

왕치등이 교유한 사람은 고관부터 미천한 신분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했다. 그는 교유를 통하여 이름을 널리 알렸으며 또 이를 통해 생존을 위한 경제적 내원

33) 歸聽譙鼓已三聲，急持高枕欲臥，乃爲人索祭文，苛於虎。剪西窓下燭，伸紙攢眉，宛似兒時習公車業，畏苜蓿先生椶楚狀。（「與錢平甫」，《謏野集》卷1，338쪽）

34) 侍兒家人，攢眉蹙額告置者，嘈嘈耳中。（「與吳幼安」，《謏野集》卷1，339쪽）

35) 臺使郡國長吏四方之客，無貴賤賢愚，輻輳並進。（李維禎，「徵君王百谷先生墓誌銘」，《大泌山房集》，543쪽）

을 얻기도 했다. 왕치등이 40여세에서 50여세까지 쓴 편지들을 모은 책독집 『謨野集』의 경우 여기에 실린 800통 가까운 편지를 보면 당시 교유한 대상이 100명 이상이고 신분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왕치등이 교유관계를 주로 맺은 시기는 고향 오문에서와 북경에서 원위 문하에 문객으로 있었을 때 또 出遊하여 각 지역에 잠시 머물렀을 때 등이다. 그가 교분을 나누었던 문인으로는 唐順之, 李維禎, 王世貞과 王世貞의 동생 王世懋, 凌濛初의 아버지 凌迪知, 謝榛, 屠隆<sup>36)</sup>, 陳繼儒, 袁宏道 형제, 江盈科, 謝肇淛, 曹學佺 등이 있었다. 또 기녀 薛素素, 劉姬, 馬湘蘭 등과도 교유했으며, 불교계 인사로는 남경의 名僧 洪恩 등과 가까이 지냈다. 산인으로서의 삶이 왕치등으로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당시 급격하게 늘어난 산인 末流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근래에 간사한 이들, 돌아다니며 생계도모를 하는 문인들은 거짓으로 미사여구를 꾸며 인재들에게 벼슬을 구하며, 사방팔방 길에서 날아다니는 파리가 노린내에 달라붙어 손으로 쳐도 흩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sup>37)</sup>

위 글에서 왕치등은 권세가 주위를 맴도는 산인을 노린내에 달라붙는 파리로 비유하며 그 몰염치함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왕치등이 57세 때 쓴 「廣長菴主生壙志」<sup>38)</sup>는 그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을 비교적 완정하게 자술하고 있는데 자신의 경력 중 많은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산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그는 젊어서는 유가를, 중년에는 의협을, 말년에는 목가를 좋아했으나 이제는 儒者도, 俠者도, 墨者도 아니라는 자술과 함께,<sup>39)</sup> 淸濁을 오가는 산인으로서의 다중성을 고백하고 있다.

나의 못남은 위로는 寒蟬의 고결함을 가질 수 없고 아래로는 壤蟲의 더러움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과 같으니 대개 행실이 또 맑음과 탁함의 사

36) 왕치등은 도룡과 처음에는 친구였다가 뒤에는 원수가 되었다 한다.

37) 近世奸人游士假雕虫以干進賢, 旁午於道, 若飛蠅集羶, 撲之不去。(「與陳觀察」, 『謨野集』卷8)

38) 『王百穀集十九種三十九卷』, 269쪽.

39) 余少好儒, 中好俠, 晚乃好墨. 其儒也, 儒者得名之. 俠也, 俠者得名之. 墨也, 墨者得名之. 若夫非儒非俠非墨, 此誠故吾. 吾不能自名, 還諸造化而已.

이에 있을 뿐이다.<sup>40)</sup>

관리들에게 간알하고 또 매문을 통하여 생활하는 산인은 이미 寒蟬의 고결함을 가질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壤蟲의 더러움을 달갑게 여길 수도 없으니 淸濁의 면모를 다 가진 명후기 산인의 다중적인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벼슬길이 막힌데다 경제 번영 등으로 은거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명후기 상황에서 왕치등과 같은 잉여지식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市井에서 은거하는 문인 즉, 산인이 되는 것이었으며 그 산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은 淸濁의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 3) 主流文學의 조력자

명대 시문학의 주된 흐름은 명대 중후기에 걸쳐 문단을 지배했던 前後七子の 복고주의와 이에 반대하여 나타난 명후기 公安派를 중심으로 한 主情主義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후칠자든 공안파든 이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동참하는 문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문인들 중에는 산인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산인들은 복고파의 중심인물인 王世貞, 공안파의 영수인 袁宏道와 교류하여 명대 시문학의 복고파와 공안파가 그 문학적 주장을 펼치는데 일조를 하였다. 후칠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왕세정은 산인과의 교류가 많았다. 산인 王穉登, 沈明臣, 王叔承, 謝榛, 王逢年, 盧柟, 彭年, 黃姬水, 俞允文, 屠隆 등과 교류하여 이들을 복고파의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었다. 왕치등은 沈明臣, 王叔承 등과 함께 복고파의 '四才子' 대열에도 들어가 '文必秦漢, 詩必盛唐'의 복고주장에 동조했다. 왕치등은 왕세정과 교류관계를 맺었을 뿐 아니라 왕세정의 동생 王世懋, 아들 王士驥, 외조카 曹子念과도 교류했다. 「與方子服論詩書」에는 왕치등 초기의 시가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이몽양이 흥치 정덕 연간에 태어나, 關隴 지역에서 우뚝 일어나 교룡이

40) 有若余之不肖, 上不能爲寒蟬之潔, 下不屑爲壤蟲之汚, 蓋行已在淸濁之間而已.

날아오르고 호랑이가 보듯 이전 일곱 임금 때의 피폐해짐을 힘껏 만회하고, 몸소 백년의 쇠약함을 구제하여, 사람들에게 가리켜 호소하여 말했다. : ‘고시는 한위가 아니면 고시가 아니다. 율시는 성당이 아니면 율시가 아니다.’ 일시에 나라의 빼어난 문사들이 일제히 그를 좇아 시가의 학문이 또 마침내 다시 떨치게 되었다. 지금 그 시를 읽어보고 나는 단지 그 격조는 높으나 뜻이 직접적이고, 재주는 크나 정은 소홀하고, 체제는 바르나 시율이 용속하고, 힘은 남음이 있으나 정교함은 부족함을 애석해한다. 어찌서인가? 잘못됨을 바로잡음이 너무 지나쳐서, 화평함에 이르지 못하고, 모방이 너무 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낼 겨를이 없었으니, 대개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sup>41)</sup>

이 글에서 왕치등은 백년간 지속된 명대 시문의 쇠약함을 이몽양이 복고로써 바로잡았음을 인정한 다음, 잘못을 바로잡음이 너무 지나쳐 ‘화평함’에 이르지 못하고 복고가 모방으로 치달아 독창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왕치등은 이후 屠隆, 沈明臣, 王叔承 등의 산인과 함께 공안파로 전향하게 되는데 위의 「與方子服論詩書」를 보면 복고파의 폐단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 전향의 기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인 신분의 왕치등은 주류문단에서 크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왕세정은 개인적으로는 왕치등의 재주를 높이 사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 왕세무의 祭文을 왕치등에게 부탁할 정도였지만, 문학적으로는 왕치등의 명성을 누르고자 하는 면이 있었다. 그는 왕치등에 대해 “참으로 교묘함과 번다함을 없앤다면 세상에 이름을 날리기에 충분하다(苟能去巧去多, 便足名世)<sup>42)</sup>”라며 문학적으로는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이는 진사 출신의 고위관리가 문단의 영수였던 당시 상황에서 벼슬이 없는 산인 신분으로서의 왕치등은 그 문학적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웠음을 뜻하기도 한다. 즉 왕세정의 복고 주장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다. 산인이 문단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웠음은

41) 李君生于弘治·正德之間, 屈起關隴, 蛟騰虎視力挽七朝之廢, 身濟百年之弱, 指而號於衆, 曰: ‘古不漢魏, 非古也. 律不盛唐, 非律也.’一時海黛英靈之士, 翕然趨之, 而風雅之學亦遂復振. 今讀其詩, 吾獨惜其調高而意直, 才大而情疎, 體正而律庸, 力有餘而巧不足也. 何則? 矯枉太過, 和平不及, 模倣刺深陶鎔未暇, 凡有識者不言可知.(「與方子服論詩書」, 『晉陵集』, 『王百穀集十九種三十九卷』, 20쪽)

42) 王世貞, 『藝苑卮言』卷7.

謝榛의 경우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사진은 복고운동 초기에는 ‘五子’의 반열에 올랐으나 복고운동이 창성하여 이반용의 명성이 커졌을 때는 이반용에 의해 ‘五子’에서 배척되었다. 이는 사진이 관리가 아니어서 정치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후철자였던 이반용의 기세가 꺾이고 왕세정도 점차 늙어가자 문단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복고가 이전의 위력을 잃고 모방과 표절의 찌꺼기가 섞이면서 의식있는 산인들은 점점 복고에서 멀어지게 된다. 王穉登, 沈明臣, 王叔承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이 공안파에 동조하면서 공안파의 세력도 점차 커져 갔다. 특히 왕세정이 죽은 후에는 屠隆, 陸弼, 張鳳翼, 張獻翼 등의 산인들이 복고파에 대해 등을 돌리고 공안파 문인들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왕치등은 공안파의 영수였던 원굉도가 吳縣의 知縣이었던 시절 그와 교류했다. 당시 원굉도가 쓴 다음의 글을 보면 왕치등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왕치등은 평소에 나와 잘 지내고 있다. 집은 錦帆涇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현의 관서에서 3백 척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왕치등은 절대로 사사롭게 간알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대단히 중히 여기고 있다.<sup>43)</sup>

이 글을 썼던 당시 원굉도가 30세고 왕치등이 63세로 원굉도가 왕치등보다 33세 연하였지만 이들은 나이 차를 초월하여 교류했다. 원굉도는 왕치등의 시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대의 아름다운 시로 말하면, 격이 높은 것은 王維에게 견줄 수 있고, 격이 낮은 것이라 하여도 儲光羲·劉禹錫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의 아우도 극히 애중하여, 다 보고 나서는 즉시로 巾笥 속에 꼭꼭 싸두고 있습니다.<sup>44)</sup>

43) 王百穀雅與余善, 宅枕錦帆涇, 去縣署不百武, 百穀絕不以私干謁, 余甚重之。(「閱曹以新·王百穀除夕詩」, 『역주 원중량집(袁中郎集)』 2권, 원굉도 저, 심경호·박용만·유동환 역주, 서울, 소명출판, 2004, 121쪽)

44) 佳詩上比摩詰, 下亦不失儲·劉, 家弟極寶之, 閱罷即襲之笥中矣。(「王百穀」, 앞의 책, 195-196쪽)

왕치등도 원굉도의 성령설에 공감하여 『湖西草堂詩集序』에서 다음과 같이 시가에 '성령'을 써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그 대강을 살펴보면 興에서 발하고 事에서 그치며, 境과 닿아 생겨나고 意가 다하여 그치니, 천착하지 않으며, 奇險함으로 남을 이기기를 추구하여 나의 성령을 손상시키지 않는다.<sup>45)</sup>

위의 글에서 왕치등은 시가는 기이함을 구하지 말고 그 저절로 그러함을 따라서 性靈이 상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치등은 자신의 시에서 이러한 주장을 실현한 청신한 시를 쓰기도 했다.

荊溪古風土.	형계는 옛 땅이고,
陽羨好山川.	양선은 좋은 산천이네.
不遠三百里.	삼백리 멀다 않고,
重來廿五年.	다시 왔네 25년만에.
雲中尋洞府.	구름 속에서 신선사는 곳 찾고,
花里下樓船.	꽃 속에서 층층배 내리네.
欲買芳蘭去.	향그런 난꽃 사 가고 싶어도,
清芬莫論錢.	맑은 향 돈으로 형량할 수 없네. <sup>46)</sup>

위의 시를 보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성령'을 시에 담아냈음을 알 수 있다. 왕치등은 원굉도가 오현을 떠난 뒤에도 원굉도의 '성령' 이론을 계속 펼쳐 공안파 문학에 일정 정도 공헌했다. 이처럼 왕치등은 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주류 문학인 시문학 분야에서 핵심적인 지위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복고파의 확대와 공안파의 확대에 모두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했다.

45) 顧其大要，在發乎興，止乎事，觸境而生，意盡而止，毋鑿空毋角險以求勝人而劇損吾性靈。(王世正, 『舟州續稿』 卷46, 『四庫全書』 221冊, 607쪽)

46) 『重游荊溪』, 『荊溪疏』 卷下, 『王百穀集十九種三十九卷』, 143쪽.

## 4) 閑適과 縱欲의 山人文化 체현

명후기에 산인이 대거 등장한 것은 문인들이 전통의 유가적인 삶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산인들은 과거시험에서 낙방하거나 과거시험을 포기한 뒤 자아를 즐겁게 하는 인생을 추구하였다. 산인은 하층 士人 계층이라 市井문화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동시에 雅문화 전통이 몸에 배어 있어 저절로 雅와 俗이 공존하는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우아하고 한적한 생활을 추구하는 동시에 종욕적인 생활을 하였다. 명말을 살았던 산인 張岱(1597?~1680?)의 경우 말년에 자신을 위해 쓴 묘비명 「自爲墓誌銘」에서 지독한 쾌락주의자로 보낸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소년, 아름다운 옷, 맛있는 음식, 준마, 아름다운 초롱, 불꽃, 연극, 음악, 골동, 꽃과 새를 무척 좋아하고, 차와 감귤, 책과 시에 열중했다.<sup>47)</sup>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난징의 환락가 다니기, 차 음미, 燈을 애장품으로 소장하기, 현악기 古琴 동호회 참가(매달 세 번 모임), 鬪鷄 동호회 참가, 축극 공연 보기, 연극 애호가, 시 동호회 참여, 민물게 시식 동호회 참여, 눈 감상, 달 구경, 사냥, 가극(연극)에 대한 열정, 극단 소유 등등이다.<sup>48)</sup> 이러한 장대의 생활은 명후기 산인들의 우아하고 한적하면서도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면모를 잘 보여 준다. 왕치등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다. 명대에는 자신의 정원을 만드는 기풍이 성행하여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 趙宦光은 寒山園이 있었으며, 왕치등도 半偈園을 가지고 있었다. 왕치등은 상인이었던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sup>49)</sup> 산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았던 편이었다. 왕치등이 말년에 쓴 「答張孺愿秀才」를 보면 정원을 수리하고 누대를 지어 한적한 풍류를 추구하고자

47) 이나미 리츠코 지음, 김석희 옮김, 『중국의 은자들』, 서울, 한길사, 2002, 183쪽.

48)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이준갑 옮김, 『릉산으로의 귀환: 장다이가 들려주는 명말청초 이야기』, 서울, 이산, 2010, 31-63쪽 참조.

49) 父産累萬(李維楨, 「徵君王百谷先生墓誌銘」, 『大泌山房集』 卷88, 543쪽)

했음이 잘 나타난다.

올해 누각을 짓고 살면서 성 서쪽 산색을 다 누리고 싶습니다. 누우면 푸른빛이 보이니 늙어 陳登같은 豪傑俠士의 모습을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sup>50)</sup>

다음 글에도 왕치등이 유유자적하며 한적함을 즐기는 모습이 잘 보여진다.

저희 집 오동나무와 향나무는 지나가는 비에 맑고 깨끗해지고, 저는 책 한 권 끼고 나무 아래에 다리 뻗고 앉아서, 피곤하면 던져버리고, 가을 앵무새가 남아서 장난치는 거 들어보니 어색하기가 늙은 기녀가 「도엽가」를 노래하는 것과 같아, 반은 울고 반은 목이 메이니, 아주 즐거워 강주사 마 백거이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sup>51)</sup>

왕치등과 같은 산인들은 이처럼 한적하고 우아한 생활방식을 통해 사회에 속한 듯 벗어난 듯한 모습으로 자아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관료사회로의 이동이 불가능해지자 에너지가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왕치등은 한적한 삶과 함께 종유적인 삶을 산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시 「十五夜拙園賞月作短歌行」의 일부를 보자.

천도는 항상됨이 없고, 인정은 영원함이 없네. 강만큼 술이 있고, 언덕만큼 고기가 있네. 이처럼 좋은 밤, 즐겁지 않으면 어찌겠나. 만나기 어려운 것이 모임이고, 기다려 주지 않는 것이 세월이네. 밝은 달로 비유해본다면, 어찌 영원히 등글 수 있겠는가.<sup>52)</sup>

50) 今歲建樓居，欲盡納城西山色，儼臥而見翠微，不羞老作元龍豪士態(「答張孺愿秀才」，『謨野集』卷1，『王百穀集十九種三十九卷』，336-337쪽)

51) 寒齋梧栝，經雨濯濯，僕挾一編，箕踞樹下，倦則擲去，聽秋鶯殘弄，澁如老妓歌桃葉，半鳴半咽，則大愉悅，以爲不減江州司馬。(「與小陳觀察誕先」，『謨野集』卷1，『王百穀集十九種三十九卷』，337쪽)

52) 天道無恒，人情靡常。有酒如河，有肉如坡，如此良夜，不樂云何。難逢者會，不待者年。譬如明月，安得長圓。(『明月篇』卷上，『王百穀集十九種三十九卷』，90쪽)

술과 고기를 쌓아놓고는 영원한 것은 없으니 이 순간을 즐기자는 及時行樂의 면모가 잘 보여진다. 왕치등의 다음 글에는 청루에서 기녀들과 즐긴 생활이 잘 보인다.

저는 열 두 살부터 청루에서 즐기다가, 서른 두 살에 마침내 그만두었습니다. 중간 20년간은 본래 일찍이 이 미녀들과 가까이하지 않음이 없어, 비녀와 귀고리가 중횡으로 교차하고, 신발이 뒤섞이고, 소매에 닿고 베개에 닿았으며, 꽃에 흘리고 달에 취했으니, 이 마음은 돌이 아니라서 더욱 상황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sup>53)</sup>

위 글에서 왕치등이 32세 이후에는 청루를 출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기녀들과 즐기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李維禎의 다음 글에는 왕치등의 이러한 중욕적인 삶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 사람됨이 젊어서 고매하여, 북쪽에서는 여인 있는 술집에서 지내며 燕 땅의 옥같은 미녀로 몸을 덥히고, 趙 땅 기녀와 즐겼다. 남쪽에서는 秦 淮河的 桃葉 나무를 건너 남경에서 묵으며 스스로 곡을 만들고, 노래로 표현하고, 절주에 맞춰 일어나 춤추며, 바둑을 두고 투호를 하며 종일토록 사람들과 술에 취했다. …… 선생은 세 임금을 거치며 큰 명성을 누렸고 精華를 취함이 많았고, 사물을 취함이 넓었다. 한 여인을 잃으면 또 한 여인이 들어왔다. 여인이 15세에 선생을 모셔 늘 늙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에게 딸을 낳아주며, 말하기를 “아들을 낳을 거예요”라 했다. 내가 방술 책을 살펴보고, 사람의 맥을 진맥한 것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나만 선생처럼 건강한 사람은 아주 드물었다. 설마 天老와 황제의 계책, 彭祖와 少君의 방술이라도 있던 말인가?<sup>54)</sup>

53) 僕十二而游青樓，三十二遂斷絕。中間二十載，雖未嘗不與此曹燕曠，釵珥縱橫，履寫錯雜，連袂接枕，迷花醉月，而此心非石，更不可轉。(「答朱十六」，『謀野集』卷3，『王百穀集十九種三十九卷』，384쪽)

54) 其爲人，少年軒舉，北過胡姬酒樓，暖燕玉，跣趙履，南渡桃葉，宿長干，自度曲，被歌聲，按節起舞，博奕壺矢，終日同人醒醉 …… 先生歷三朝，享大名，取精多，用物弘矣。喪一姬，復一姬進，姬筭而侍先生，恒言不稱老，爲之生女，曰“行且得雄。”賤子按方書，切人脈何可勝數，如先生健者殊鮮。豈其有天老軒皇之圖，彭祖少君之術乎?(「才難篇」，『大泌山房集』卷35，濟南，齊魯書社，1997，234-235쪽)

왕치등은 가는 곳마다 미녀들과 가까이 하며 풍류를 즐겼으며 노인이 되어서도 15세 소녀와 아이를 낳았음이 위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吳縣의 知縣이었던 시절 왕치등과 교류했던 원굉도가 세월이 흐른 뒤 公安에서 왕치등에게 보낸 다음 글에도 왕치등의 종욕적인 면이 잘 보인다.

들자하니 왕선생께서는 더욱 건강해지셔서 젊은 미인과 함께 아들을 낳으셨다고 하니, 늙어서도 용맹하심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십도 못되어서 이미 쇠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 매우 부럽습니다.<sup>55)</sup>

원굉도가 이 글을 쓴 것이 1606년(만력 34년)으로 당시 원굉도는 39세였고 왕치등은 72세였다. 43세에 세상을 떠난 원굉도의 경우 이 때 이미 몸이 쇠했는데 왕치등은 70이 넘어 아들을 낳았더니 왕치등의 건강함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만력야획편』을 보면 왕치등이 이런 종욕적인 생활로 인해 매독에 걸렸음을 알 수 있다.<sup>56)</sup>

왕치등은 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 “창 밖의 두견 꽃은 새가 되고, 무덤 앞의 석상은 사람이 된다네.” 당시 汪道昆의 동생 道貫이 형과 함께 吳 땅에 왔다가 또 그 체를 본 때 「贈百穀詩」를 지었다. : “몸 위의 양매창은 열매가 되고, 눈 안의 蘿蔔鬚는 꽃이 되네.” 당시 왕치등은 매독을 앓아 몸 전체에 퍼져 있었고, 그 눈은 약간 장애를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지은 것이다.<sup>57)</sup>

북고과 후칠자 집단에 속했던 新安 시인 汪道昆 형제가 吳 땅에 갔다가 왕치등이 매독에 걸린 것을 조롱한 내용이다. 『만력야획편』의 「守土吏狎妓」를 보면 왕

55) 聞王先生益健飯，猶能與青娥生子，老勇可想，不肖未四十已衰，聞此甚羨(원굉도 저, 심경호·박용만·유동환 역주, 『與王百穀』, 『역주 원중량집(袁中郎集)』 8권, 서울, 소명출판, 2004, 288쪽)

56) 명후기 문인들 중 왕치등만 매독에 걸린 것은 아니었다. 산인 도룡은 매독으로 죽었으며, 유명한 희곡가였던 湯顯祖도 매독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다.

57) 王又有詩云：“廳外杜鵑花作鳥，墓前翁仲石爲人。”時汪太函介弟仲淹(道貫)偕兄至吳，亦效其體作贈百穀詩：“身上楊梅瘡作果，眼中蘿蔔鬚爲花。”時王正患梅毒偏體，而其目微帶障，故云。(沈德符, 『王禪登詩』, 『萬曆野獲編』, 北京, 中華書局, 1997, 585-586쪽)

치등이 청렴한 관리에게 기녀를 소개시켜주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도 나온다.

聊城의 傅金沙(傅光宅)가 吳縣 知縣이었는데 문채와 풍류로써 다스렸으며, 절개 역시 청렴했다. 뭇땅의 선비 왕치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자주 그 집에 가서 가볍게 술을 마셨는데, 왕치등이 깊은 작은 방에 명기를 숨겨두었다가 음주가 무르익었을 때 나와 잠자리 시중을 들게 하여 마침내 관례로 삼았다. 왕치등이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청탁을 하여 주머니가 가득 찼다.<sup>58)</sup>

위 글을 읽어보면 왕치등 인격의 비열한 면모가 보인다. 『만력야획편』에 유독 왕치등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많이 실려 있는데 왕치등의 다중적인 인격 면모를 이해하는데 참고할만하다. 왕치등은 진회팔염(秦淮八豔)<sup>59)</sup> 중 가장 유명한 기녀인 馬湘蘭(1548~1604)과의 로맨스로도 유명하다. 왕치등은 마상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구해준 일이 있었는데, 이후로 마상란은 왕치등에게 연모의 마음을 가졌다. 마상란은 왕치등의 첩이 되고 싶어 했으나, 왕치등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마상란은 왕치등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보여주었다.

헤어진 후, 저는 짧은 순간에도 마음에 품게 되어 자나 깨나 지기(知己)를 잊지 못합니다. 멀리서 친구를 그리며 지난날의 좋은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지만, 각기 다른 곳에 떨어져서 마음속이 막히고 맺혔고, 아침저녁으로 계속 보고 배개를 나란히 하여 마음을 나눌 수 없음이 한스럽습니다. 또 가을비가 창문을 가득 채우고, 차가운 창이 꿈을 깨게 하니, 이 정과 이 풍경에 참으로 저는 넋이 나갈듯 합니다. 어느 날 그대를 만나 그리움의 역올한 빛을 다 마칠까요. 살면서 세상에 즐거움이 없네요!<sup>60)</sup>

58) 聊城傅金沙令吳縣以文采風流爲政，守亦廉潔。與吳士王百穀厚善。時過其齋中小飲，王因匿名妓于曲室，酒酣出以薦枕，遂以爲恒，王因是居間請托，橐爲之充牣。(앞의 책, 713쪽)

59) '秦淮八豔'은 명말 청초에 강남지역 남경 진회하(秦淮河) 부근에서 활동했던 8명의 명기를 가리킨다. 余懷의 『板橋雜記』에서 顧橫波·董小宛·卞玉京·李香君·寇白門·馬湘蘭 6명을 언급하고 있으며, 후인이 또 柳如是와 陳圓圓을 추가하여 이 8명을 '秦淮八豔'이라 불렀다.

60) 別後，妾頃刻在懷，卽寤寐未忘知己。遙憶故人，再續舊好，恨天各一方，中心鬱結，不能朝夕繼見，聯枕論心。又復秋水盈窗，寒窗破夢，此情此景，眞妾銷魂時也。何日見君，了卻相思冤債，作人世未有之歡乎!(金嗣芬 著, 『板橋雜記補』, 南京出版社, 2006, 137쪽)

마상란의 마음이 이처럼 절절한데도 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녀를 구해 준 것이 보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데다 혹 받아들였을 때 오중 지역 名士로서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편으로는 기녀와의 사귀음을 그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음도 아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남경 桃葉 나무의 기루에서 말 안장지우는 일이 점점 드물어집니다. 內室의 낮은 휘장 안에서 처량하기가 마음 속 근심처럼 심해 거의 손님 만나기를 사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 사이에서 베개를 높이 베고 공후 연주를 듣고 앵무새를 훈련시키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산발한 채로 밤을 보내고 아침까지 지내니, 이를 교활한 토끼의 한 동굴로 삼을 뿐입니다.<sup>61)</sup>

교활한 토끼는 세 곳의 숨을 동굴이 있어야 죽음의 위험을 피하고 편히 지낼 수 있듯이,<sup>62)</sup> 왕치등에게 기루 역시 몸을 기탁하는 여러 군데 중 한 곳일 뿐이었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왕치등은 한적하고도 종욕적인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현실 사회에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참여하지도 않는 산인의 독특한 삶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명후기에 대거 등장한 산인들이 세속화된 은자로서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유가적인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市井문화와 雅문화 사이를 오가며 자아를 즐겁게 하는 인생을 추구한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3. 나오는 말

명후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준비하게 되면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산인'이라는 신분의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다. 잉여지식인들인 이들은 세속화된 은자로 도시에서 은일하여 세속의 즐거움도 얻으면서 은일의 명분도 누린 入世와 出世를 혼합한 형태의 삶을 살았다. 이들은 대체로 강남 지역에

61) 桃葉老姬家, 鞍馬漸稀. 曲房低幃之內, 蕭瑟如愁, 差堪謝客. 僕時時高枕其間, 聽篳篥調鸚鵡, 箕踞散髮, 窮夜達旦, 以此當狡兔一穴耳. (『答朱十六』, 『謀野集』卷3, 『王百穀集十九種三十九卷』, 384쪽)

62) 狡兔有三窟, 僅得免其死耳. (『戰國策·齊策四』)

살면서 관리나 세력가에게 의탁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얻거나 시문이나 서화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왕치등은 이러한 산인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30세 때 북경의 太學에서 과거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당시 권세가였던 袁煒의 총애를 받아 명성을 얻게 되었다. 왕치등과 원위의 관계는 명후기 산인과 권세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왕치등은 원위를 통해 경제적 도움과 명성을 얻고 원위 역시 왕치등이 대필해주는 글을 통해 명성을 더 높일 수 있었다. 두 번의 과거시험과 인연이 없었던 왕치등은 과거를 포기하고 산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吳門으로 돌아온 그는 시문이나 그림을 팔아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왕치등의 시문과 서화는 그 명성이 높고 수요가 많아 생계를 꾸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산인으로서의 왕치등은 또 폭넓은 교유를 통해 생존을 위한 사회적인 관계망을 만들고 경제적 내원을 얻기도 했다. 왕치등은 광범위한 교유를 하여 상대 지위의 귀천, 능력의 고하를 따지지 않았다. 왕치등은 또 명대 중후기 시문학의 흐름이 전후칠자의 復古主義에서 공안파의 主情主義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복고주의와 주정주의 주장이 확대되는데 각각 다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 명후기 사치와 향락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왕치등은 또 한적하고도 종욕적인 삶을 추구함으로써 현실사회에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참여하지도 않는 독특한 삶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명후기에 산인 계층이 대거 등장한 것은 당시의 사회문화 현상의 하나로 이 시기의 사회, 문화, 문학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 산인 계층의 존재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왕치등은 그 삶을 통해 산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 〈參考文獻〉

- 王穉登, 『王百穀集十九種三十九卷』, 『四庫禁燬書叢刊·集部』第一七五冊, 北京, 北京出版社, 2000.
- 『明史』, 北京, 中華書局, 1997.
- 沈德符, 『萬曆野獲編』(全三冊), 北京, 中華書局, 1997.

- 王世貞, 『藝苑卮言』 卷7.
- 袁宏道, 『袁宏道集箋校』,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 원평도 저, 심경호·박용만·유동환 역주, 『역주 원중량집(袁中郎集)』, 서울, 소명출판, 2004.
- 李維禎 撰, 四庫全書存目叢書編纂委員會 編, 『大泌山房集』, 濟南, 齊魯書社, 1997.
- 錢謙益, 『列朝詩集小傳』 上·下, 臺灣, 世界書局, 1965.
- 羅宗強, 『明代後期士人心態研究』,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6.
- 張德建, 『明代山人文學研究』, 서울, 新星出版社, 2003.
- 周明初, 『晚明士人心態及文學個案』, 北京, 東方出版社, 1997.
- 김쟁 저, 강길중 역, 『中國文化와 科擧制度』, 대구, 중문, 1994.
- 오오키 야스시 지음, 노경희 옮김,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서울, 소명출판, 2007.
- 이나미 리츠코 지음, 김석희 옮김, 『중국의 은자들: 불멸의 저항정신이 만들어내는 중국사의 풍경』, 서울, 한길사, 2002.
- 이지 지음, 김혜경 옮김, 『분서』, 서울, 한길사, 2004
-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이준갑 옮김, 『룽산으로의 귀환: 장다이가 들려주는 명말청초 이야기』, 서울, 이산, 2010.
- 譚勇, 『王百穀詩歌研究』, 西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 劉士義, 『明代青樓文化與文學』, 南開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 劉坡, 『中晚明秦淮名妓考略』,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蕭敏材, 『晚明吳中布衣文人王百穀新探』, 臺灣, 國立中央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 王偉, 『山人王禪登及其詩歌研究』, 江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 李海燕, 『明代嘉靖·萬曆年間山人研究』, 暨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張帥, 『王百穀年譜簡編』, 蘇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魯歌, 『『金瓶梅』作者“王禪登說”簡論』, 『古典文學知識』, 2004.
- 伏建民·朱丹, 「明代大山人王禪登」, 『淮南師範學院學報』, 2010年 第6期.
- 徐林, 「明代中後期隱士與山人之文化透析」, 『西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30卷 第4期, 2004.
- 徐朔方, 「湯顯祖和梅毒」, 『文學遺產』, 2000.
- 王汝濤, 「王禪登作『金瓶梅』說獻疑」, 『山東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0.
- 牛建強, 「明代山人群的生成所透射出的社會意義」, 『史學月刊』, 1994年 第二期.
- 郁婷婷, 「城市變革與文學專型 -以王禪登爲對象」, 『名作欣賞』, 2014.
- 李斌, 「晚明“山人”與晚明士風 -以陳眉公爲主線」, 『學術月刊』 第38卷 6月號, 2006.
- 李聖華, 「晚明山人與山人詩」, 『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 第39卷 第4期, 2002.

- 張德建, 「明代山人群體的生成演變及其文化意義」, 『中國文化研究』, 2003年夏之卷.
- 張靜秋, 「晚明山人的文化風貌及文化建構」, 『安慶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第21卷 第4期, 2002.
- 趙軼峰, 「山人與晚明社會」,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1年 第1期.
- 馮保善, 「在清濁之間 - 晚明詩人王穉登」, 『文史知識』, 2007.
- 신주리, 『16-17세기 강남의 주변부 문인 연구』,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백광준, 「士大夫와 산인의 사이에서 - 張岱와 陳繼儒를 통해 본 명말 문인의 삶」, 『중국문학』 제85집, 2015.

〈Abstract〉

Study on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Shan Ren (山人) of Later Stage  
Ming Dynasty based on Wang Zhi Deng (王穉登)

Shin, Min-Ya

During later stage (後期) of Ming Dynasty (明代), a large number of 'Shan ren (山人)', who could not enter government service, appeared as much more people began to prepare the imperial examination (科舉) than previous period. As the surplus intellectuals, they lived a combined type of life between *Rushi* (入世, go into the society), enjoying the justification of eunil while enjoying worldly pleasure secluding in the city as the secularized hermit (隱者) and *chushi* (出世, beyond the world). They mostly maintained livelihood receiving economic help by relying on the public officials or influential people or selling poems and essays (詩文) or calligraphy and painting (書畫), living in *Jiangnan* (江南, south of the lower reaches of the Changjiang River) region.

*Wang zhi deng* (王穉登, Wang zhi deng) was a typical typ of this Shan ren. He attained fame as he was a favorite with *Yuan Wei* (袁煒), a power of that period while he was preparing imperial examination at *Tai xue* (太學, the highest seat of learning in ancient times in China) of Beijing at his age 30. Relationship between *Wang zhi deng*

and *Yuan Wei* well showed relationship between Shan ren of late Ming dynasty and the power, accordingly, *Wang zhi deng* attained economic help and fame through Yuan Wei, also, Yuan Wei could raise his fame higher through the writing composed by Wang zhi deng for him. *Wang zhi deng*, who could not pass two imperial examinations, gave up the examination and lived as Shan ren. After having returned to *Wu Men* (吳門), he maintained livelihood by selling poems and essays or painting. Wang zhi deng's poems and essays as well as calligraphy and painting were famous and popular, which was helpful for his livelihood. As Shan ren, Wang zhi deng created social network and attained economic offering through wide friendly relations to support his life. Through wide friendly relations, *Wang zhi deng* never discriminated high or low of their status, and high or low of ability. Also, *Wang zhi deng* took a role of an assistant respectively in extension of Retro Theory and insistence of Disposition Theory in the process when the stream of mid and late Ming dynasty poetry went on to Disposition Theory (性灵说) of *Gonganpai* (公安派) from Retro Theory (复古主义) of *Qianhouqizi* (前後七子). In the social atmosphere where luxury and enjoyment prevailed during late Ming dynasty, *Wang zhi deng* pursued leisurely quietness (闲寂) and indulgence in sensual pleasure (纵欲), showing a unique lifestyle that did not leave real society without participating therein, simultaneously.

The point that majority of Shan ren class appeared during late Ming dynasty was a sociocultural phenomenon of that period, and the existence of Shan ren class was a significant point to understand the society, culture, and literature of this period.

Key Words: Wang zhi deng (王穉登), shan ren (山人), late Ming dynasty (明後期), seek to interview with requests for favor (干謁), selling poems and essays or painting (賣文), the culture of shan ren (山人文化)

關鍵詞: 王穉登, 山人, 明後期, 干謁, 賣文, 山人文化

이 논문은 2016년 4월 8일에 접수되어 2016년 5월 9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5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